

양현종, 홈런 '두 방'에 와르르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가 열렸다. KIA 선발 양현종이 5회까지 5실점을 허용한 뒤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투런포 등 5실점... KIA, 4-5 패배 SK전 5연승 마감



SK전 5연승에 안타 하나가 부족했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7차전에서 4-5패를 기록했다.

1점 차로 뒤진 9회 2사 만루에서 '해결사' 안치홍이 타석에 들어섰지만 우익수 앞으로 공이 향하면서 아쉬운 탄성이 챔피언스필드를 가득 채웠다.

이번 경기는 지난 5월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격돌했던 KIA 양현종과 SK 켈리(2자책)의 '리턴 매치'였다.

앞선 대결에서는 양현종이 5이닝 3실점(2자책)으로 승리투수가 되면서 4.1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던 켈리에 완승을 거뒀지만, 이번 대결에서는 켈리가 승리를 가져가며 웃었다.

양현종이 홈런포 두 방에 아쉬움을 삼켰다.

1회초 양현종이 선두타자 노수광을 좌전안타로 출루시킨 뒤 김성현의 희생번트

로 1사 2루 상황을 맞았다. 그리고 3번 타자 로맥과의 풀카운트 승부 끝에 던진 8구째 134km짜리 체인지업이 우측 담장을 넘으면서 한 번에 2점을 내줬다.

2-2 맞선 3회에도 '홈런 군단' SK에 홈런을 허용했다.

1사 1루에서 양현종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이재원에게 첫 볼넷을 허용했다. 그리고 한숨을 고를 틈도 없이 김동엽에게 던진 초구를 난타당했다. 144km 직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점수는 2-5로 다시 벌어졌다.

양현종은 6회까지 100개의 공을 던진 뒤 2-5로 뒤진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양현종이 물러난 뒤 유승철과 임기준이 7-8-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KIA에 승부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KIA가 6회 상대의 실책이 발판이 된 득점에 이어 7회 바나나나와 솔로포로 4-5까지 추격을 한 채 9회말에 돌입했다.

선두타자 최원준이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김민식의 희생번트로 2루까지 간 최원준이 끝내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최정민의 타석에서 대타 박준태가 볼넷을 골라내면서 1사 1-2가 됐지만 앞선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던 바나나나가 스탠

▲광주전적(13일)

SK	203	000	000	-5
KIA	020	001	100	-4

△ 승리투수= 켈리(6승 4패) △ 세이브투수= 신재웅(2패 3세이브) △ 패전투수= 양현종(8승 5패) △ 홈런= 로맥 22호(1회2점) 김동엽 17호(3회3점-이상 SK) 바나나나 10호(7회1점-KIA)

딩 삼진으로 물러났다.

SK로 흐름이 기울었지만 이명기의 내야 안타가 나오면서 챔피언스필드가 달아올랐다. 2사 만루에서 타석에 선 이는 '4할 타자' 안치홍. 그러나 앞선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안치홍이 5번째 타석에서도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경기는 4-5로 종료됐다.

지난 5월 18일 홈 3연전을 시작으로 이어졌던 KIA의 SK전 연승 행진도 '4'에서 끝났다.

한편 이날 챔피언스필드에 1만6869명이 들어서는 등 전국 5개 구장에 6만1900명이 입장하면서 KBO리그 400만 관중(401만505명)을 돌파했다.

개막 후 328경기만으로 2012년 255경기, 2011년 307경기기에 이은 역대 3번째 최소 경기수다. 지난해 341경기보다는 13경기 빠른 페이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윤동 "과감하게 던졌더니 시원하게 넘어가"

깜짝 호투 황인준 "삼자 범퇴 후 몸이 붕 떴다"

덕아웃 T 특특

▲정말 과감하게 던졌더니

맞으면서 크는 KIA의 필승조 김윤동이 다. 김윤동은 최근 10경기에서 2.20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5홀드 2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백투백 홈런 등을 맞는 등 0.1이닝 4피안타(2피홈런) 3실점으로 진땀을 흘렸다. 12일 앞선 부진을 타는 2.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두 번째 세이브를 기록한 김윤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기회를 주신 만큼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부진에 대해서는 "옆에서 맞아도 직구를 맞았다고 해서 정말 과감하게 던졌다. 쳐도 홈런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원하게 넘어갔다. 상대가 직구를 보고 들어오는 만큼 변화구 비중을 높이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훈련 때는 안 보이던데

▲놀래주려고 했는데
회제가 됐던 황인준의 깜짝 선발 등판. 황인준은 지난 12일 배탈이 난 허벅지를 대신해 SK전 선발로 투입됐다. 경기 시작 3시간여를 앞두고 급히 결정된 등판. 황인준은 "와이프에게 선발 등판이라는 거 말 안 하고 야구 보러 오라고 했다. 경기장에 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족들 단체 대화방에서 말씀하시러 알아버렸다"고 웃었다. 또 "선발은 게임 중

보는 사람도 잡는 사람도 놀란 직선타였다. 지난 12일 SK와의 홈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임기영은 6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직접 처리했다. 김동엽의 타구가 마운드로 빠르게 날아갔고, 임기영이 본능적으로 글러브를 내밀어 타구를 낚아챘다. 임기영은 "공이 날아오는 게 보여서 순간 손을 뻗었다. 잡고 깜짝 놀랐다. 원래 수비 연습할 때는 공이 안 보인다. 워낙 훈련 때는 수비를 못 해서 타구 잡는 것 보고 서재웅 코치님이 놀라셨다"며 "나중에 영상으로 보니까 표정이 너무 이상했다"고 웃었다.

▲캡틴! 캡틴!

에타게 '캡틴'을 외치던 김기태 감독의 모습에 선수들의 웃음이 터졌다. 13일 SK와의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훈련. 외야에서 몸을 풀 김주찬이 덕아웃으로 들어오다가 김기태 감독을 발견했다. 김주찬이 "안녕하십니까"라며 인사를 했지만 김 감독은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느라 소리를 듣지 못했다. 김주찬이 더 큰 목소리로 "감독님!"을 부르며 두 차례 더 인사를 했지만 반응이 없던 김 감독. 취재진의 이야기에 뒤늦게 상황을 안 김 감독은 "캡틴! 캡틴!"을 외치며 라커룸으로 향하던 김주찬을 붙잡았다.

▲시험 보는 기분이라 = 김기태 감독도 1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13일 경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투표하셨나?"는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투표를 하고 경기장에 왔다. 표형사는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떨리더라. 시험 보는 기분이었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12호 홈런 포함 3안타 '통산 180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3경기만에 홈런 생산을 재개했다.

추신수는 13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11로 끌려가던 5회초 야치를 그렸다.

이미 가르시아와 상대한 추신수는 2구째 시속 155km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가운데 담을 넘겼다.

9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3경기만에 터진 시즌 12호 홈런이다.

이번 시즌 12호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180개의 홈런을 때린 추신수가 다저스타디움에서 담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뜬공으로 아웃됐다.

0-3으로 끌려가던 3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앞 안타로 출루한 뒤 달라이노 디실즈의 안타로 2루, 아드리안 벨트레의 안타로 홈을 차레로 밟았다.

7회초 투수 망블로 물러난 추신수는 9회초 2사 후 마지막 타석에서 좌익수 앞 안타



추신수가 13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회 홈런을 터트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로 3안타 경기를 펼쳤다. 이번 시즌 두 번째 3안타 경기다.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한 추신수는 27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유지하며 시즌 타율 0.273(256타수

70안타), 30타점, 41득점이 됐다.

텍사스는 다저스에 5-12로 쟁 27승 42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김연경 없으니

한국, 아르헨티나에 첫 패
발리볼네이션스리그

김연경(터키 액자사바시)이 뛰지 않을 때,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경쟁력은 똑같아진다. 또 한 번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다.

차해원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세계랭킹 10위)은 13일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 열린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5주 차 17조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11위)에 세트 스코어 0-3(18-25 24-26 21-25)으로 패했다.

한국은 5승 8패로 VLN 참가국 16개국 중 12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이 역대 성인 대표팀 맞대결에서 아르헨티나에 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류현진 부상 후 첫 투구... 조기 복귀 기대감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부상 후 처음으로 볼펜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졌다.

MLB닷컴은 13일 "류현진이 부상으로 이탈한 뒤 처음으로 볼펜 마운드에 올라 투구했다"고 전하며 "애초 류현진은 올스타 휴식이 끝난 뒤에야 복귀할 것으로 보였지만, 복귀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힘을 쥐서 던진 건 아니었다. 아직 류현진의 복귀 시점을 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류현진이 순조롭게 재활하는 건 고무적이다"라고 류현진의 투구를 반겼다.

류현진은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전에 등판했으나 2회말 왼쪽 사타구

니 부상을 당했다. 근육이 크게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이었다.

류현진이 6경기 3승 평균자책점 2.12의 호투를 이어가던 중이라 부상이 더 아쉬웠다. 류현진은 곧바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올랐고, 6월 3일에는 60일짜리 DL로 이동했다. 문서 상으로 7월 3일 빅리그 복귀가 가능하다.

실제 복귀 시점은 아직 예상할 수 없다. 다만 애초 7월 말께나 복귀가 가능해 보였지만, 순조롭게 재활을 이어가면서 처음 예상보다는 빨리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허리 통증으로 전역에서 이탈한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도 13일 볼펜에서 공 10개를 던졌다. /연합뉴스